



인텔, '결국' 임베디드 모바일 사업 철수

인텔이 결국 '순수' 모바일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엑스스케일 기반 스마트폰 및 핸드헬드PC 프로세서 사업을 매각했다.

인텔은 지난달 28일,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에 자사 커뮤니케이션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사업 부분을 6억달러(한화 약 576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을 매각하는 대신 인텔은 모바일 컴퓨팅기술인 무선랜(Wi-Fi)과 와이맥스 브로드밴드 무선 통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텔은 울트라모바일PC(UMPC) 분야도 주력분야로 가져간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의 '순수' 모바일 사업분야 프로세서는 리서치 인 모션(RIM)의 '블랙베리 8700'을 가동시키는 인텔 PXA9xx 베이스밴드 프로세서(코드명: '허문'), 팜의 트레오 스마트폰과 모토로라의 큐(Q) 등에 사용되는 PXA27x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코드명: 벌버디)가 있다.

오라클, 中 다롄市에 글로벌 지원센터 오픈

오라클이 중국 동북 지역의 다롄(Dalian)시에 오라클 글로벌 지원센터(Global Support Center)를 오픈했다.

다롄 글로벌 지원센터는 전세계 18개의 오라클 글로벌 지원센터 중 하나로 한국과 중국, 대만의 고객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기술 지원을 하게 되며, 한국 내 지원 센터와 함께 보다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다롄 소프트웨어 파크에 위치한 오라클 다롄 글로벌 지원센터는 한국어와 만다린어로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지원팀은 ERP와 같은 오라클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오라클 퓨전미들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포함한 핵심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게 된다.

오라클에 따르면, 다롄시는 인프라스트럭처, 다국어 지원, 정부 지원 및 지적 재산권 보호와 같은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고객 지원 센터의 허브로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현재 20개 이상의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지원 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오라클 서포트 서비스 부문 톰 쉴즈 부사장은 "오라클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다롄 글로벌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북아시아지역 고객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MS간부 또 '구글' 입사?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간부의 잇단 구글 입사가 문제시 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 간부인 '빅 간드 트라'도 사표를 내고 1년 내 구글로 이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이 전했다. 간드트라라는 제너럴 매니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MS와 온라인 서비스를 잘 활용토록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에서 어떤 일을 할지 그건 미정이지만 15년의 베테랑 간부이므로 구글에서 핵심적인 일을 맡을 것으로 전망됐다. MS 간부의 구글 이직은 스티브 발머 CEO의 오른팔이었던 마틴 테일러를 비롯해 그 이전 MS의 중국 사업 책임자 마크 르코브스키, 제너럴 매니저겸 소프트웨어 전문가 아담 보즈워 등이 있었다.

소니에릭슨, 워크맨 휴대폰 등 5개 기종

소니에릭슨이 스포츠 모델의 워크맨 휴대폰을 포함한 새로운 휴대폰 5개 기종을 발표했다. 대부분 3분기 중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W710'은 모션 센서를 탑재한 스포츠 모델로 사용자의 달리는 스피드·거리·시간 등을 잴다. 2메가 픽셀 카메라나 FM 라디오도 탑재됐다. 512M 바이트의 메모리 스틱 MICRO가 제공되고, 최고 1G바이트의 메모리 카드에 대응한다. 오디오 기능을 이용해 음악을 들을 때 원하는 곡이나 가수를 간단히 찾을 수 있는 '트랙ID' 기능도 있다. EDGE/GPRS 대응으로 3분기 EMEA(유럽/중동/아프리카)나 미국 및 중국 지역에서 발표된다.

'W850'은 새로운 워크맨 휴대폰으로 이 회사 최초의 슬라이드 타입 GSM/UMTS 단말기이다. 음악 서비스로부터 직접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1G바이트의 메모리 스틱 PRO 듀오가 제공되는 것도 특징이다. 음악의 리듬에 따라 컨트롤 키가 라이트업되는 '하트비트 일루미네이션(heartbeat illumination)' 기능도 제공된다.

'W710'과 같이 2메가 픽셀 카메라·FM 라디오·트랙ID 기능을 탑재했다. 통신 방식은 UMTS 2100 및 트라이밴드 GPRS 900/1800/1900. 3분기에 EMEA 지역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中 검색시장, '바이두-야후-구글' 順

시장조사업체인 이관 인터네셔널 컨설팅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6년 1/4분기 중국 검색엔진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두(baidu, www.baidu.com)는 43.9%의 시장점유율로 1위, 야후 차이나가 21.10%로 2위, 구글이 13.20%로 3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광둥, 상하이와 저장(浙江)이 검색엔진 시장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검색엔진과 전자상거래의 결합이 더욱 긴밀해져가는 추세를 보였다.

2006년 1/4분기 중국 검색엔진 시장 규모는 3억 300만 위안(간접 소득 제외)이었으며, 이 중 91.42%의 이익은 검색엔진 포털에서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8.58%의 이익은 검색엔진 웹사이트 연맹의 멤버 업체로부터 얻게 된 것이라고 이 시장조사업체는 덧붙였다. 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검색엔진 업체들이 기타 채널을 통해 얻게 된 간접소득도 1억 3500만 위안에 달했다.

한편, 검색엔진 광고주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역 수출입업 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들은 한국어나 일본어 광고 등 다국어어를 지원하는 구글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서 비교적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동북/화북지역에서는 광고주들이 바이두를 더 선호했다.

日 '개당 5엔' RFID 올 가을 양산

개당 5엔(약 50원)의 값싼 RFID(전자태그)가 올 가을 일본에서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히타치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도쿄 박사이트에서 열린 일본 최초의 RFID 전문 전시회인 '제 1회 RFID 솔루션 EXPO'에서 지난 2년여의 개발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하고 3개월 내 개당 5엔에 RFID를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히타치가 중심이 된 이 프로젝트는 경제산업성이 약 18억엔(18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히타치는 이번 전시회에서 그 성과물인 3차 시제품을 선보였다.

현재 RFID는 개당 10~100엔 정도로 단가가 높아 1회용 시스템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 이 때문에 접시에 부착한 태그를 판독해 요금을 계산하는 회전초밥의 회계시스템이나 의류에 부착한 태그로 상품 재고를 관리하는 의류업체 등에서 주로 이용돼 왔다.

GSM 이동전화사용자 20억명 돌파

미국 3G아메리카 및 영국 인포텔레콤&미디어가 세계 이동전화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6월 현재 GSM방식(GSM·GPRS·EDGE·UMTS/HSDPA 포함) 이동전화 사용자가 20억명을 돌파했다. 세계 이동전화 가입자가 24억명 정도이니, GSM방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인포마 텔레콤측은 2004년 GSM방식 사용자가 10억명을 돌파할 때까지 12년이 걸렸지만 그로부터 불과 2년 6개월만에 다시 10억명이 증가했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제국에서 성장이 높았다. 이 지역에서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성장률은 97%로, GSM방식 이동전화 사용자가 7400만명 이상 증가했다. 다음으로 중동(성장률 67.7%)과 아프리카(61.1%)에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GSM방식 휴대폰 사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등의 순서이다.

3G아메리카의 CEO는 "GSM방식 이동전화 사용자 비율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제국이 58%, 북미가 48%에 달한다"고 말했다.

북미의 경우, CDMA 및 TDMA방식 사업자들이 WCDMA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조만간 가입자 2억 5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3G아메리카측은 전망했다.

한편, GSM방식 이동전화 사용자는 2010년 30억명에 달하며, 그 중 7억명이 WCDMA사용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UT스타콤, CDMA/GSM '듀얼 스탠바이' 폰 첫 출시

단말기 1대로 CDMA와 GSM 방식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 등장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 CDMA/GSM 듀얼모드 단말기가 전환 방식인 데 비해 양 방식 모두 대기할 수 있는 제품이란 게 특징.

UT스타콤은 최근 단말기 1대로 GSM(900/1800/1900MHz)과 CDMA(800/1900MHz) 양 방식에 모두 대응하는 휴대폰 'T66'을 출시한 데 이어 이를 차이나 유니콤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UT스타콤에 따르면 이 단말기는 기존 GSM/CDMA 듀얼모드 휴대폰이 한 방식으로 전환하면 다른 방식을 사용 못하는 데 비해 양 방식 모두 대기할 수 있는 최초 '듀얼모드 듀얼 스탠바이(dual-mode dual-standby)' 단말기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어떤 모드로도 언제든지 통화를 하거나 SMS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 제품은 지난달 말, 차이나 유니콤의 글로벌 로밍 서비스인 '세기풍'용으로 공급됐다.

폴더형인 이 제품은 2.6인치 TFT 컬러 LCD와 1.3메가픽셀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64M T 플래시를 내장했다. MP4 동영상 구현이 가능하며, MP3P 기능을 통해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한다.

제품 크기는 99×50×23.5mm, 무게 128g이다. 미들/하이엔드 유저를 타깃을 하며, 특히 비즈니스 용도 사용자 수요를 기대한다.

블루투스-WiFi '통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WiFi) 공존 시연이 성공했다. 이로써 양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개발이 한층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블루투스 기술개발업체인 CSR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런던 올림픽에서 열린 통신 박람회에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WiFi)가 하나의 보드 위에서 완벽하게 동작하는 것을 시연했다고 밝혔다.

CSR에 따르면, 이번 시연은 CSR의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술이 상용화 제품 설계에 함께 적용되더라도 호스트 제품은 물론 각각의 무선 링크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오페라 브라우저 한국시장 상륙

데스크탑 및 모바일폰용을 아울러 브라우저를 공급하고 있는 오페라의 '오페라 브라우저'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륙한다.

오페라 관계자는 "휴대폰용으로는 이미 한국 시장에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하반기 경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에 대항하는 데스크탑용 오페라 브라우저 마케팅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페라 브라우저는 데스크탑용으로 개발돼도 별다른 변환없이 휴대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노키아 CDMA 사업 축소

노키아가 CDMA 사업을 축소하고 북미 시장에 전념한다. 산요와의 단말 합작회사 설립 포기도 이 일화이다.

노키아는 산요와 합작을 통해 CDMA사업 강화를 발표했다가 최근 이를 포기한 바 있다.

노키아측은 산요와의 합작 포기에 대해 "산요와의 합작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으며, CDMA 단말이 전반적으로 비싸 신형 시장에서 CDMA 사업이 곤란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CDMA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노키아는 북미 시장에 전념키로 했다. 노키아는 2007년 4월까지 CDMA 연구개발과 제조도 축소할 계획. CDMA 축소 경비로 노키아측은 3분기에 1억 5000만 유로를 예상하고 있다.

어도비시스템즈, 플래시 플레이어 9 발표

어도비시스템즈가 미디어 플레이어인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9' 버전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플래시 플레이어9은 기존 버전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졌다.

특히 이번 버전은 개발자 환경이 강화되어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랙션이 가능한 온라인 광고 제작에 훨씬ダイナミック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개발자들은 액션스크립트 3.0(ActionScript 3.0)과 새롭게 최적화된 '액션스크립트 버추얼 머신(ActionScript Virtual Machine, AVM)'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웹 2.0의 핵심 기술인 RIA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어도비시스템즈측은 "플래시 플레이어 9는 획기적으로 증대된 성능과 독보적인 스크립팅 기능을 통해서 차세대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며 "개발자들은 이번 버전을 통해 한층 혁신적인 고급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9은 윈도우와 매킨토시 환경에서 모두 지원된다.

5월 반도체 판매 9.4%증가

미 반도체 공업회(SIA) 발표 자료에 따르면 5월 세계 반도체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9.4%증가한 197억 달러였다.

세계경제 호조가 계속돼 반도체 판매액에 반영됐다고 SIA측은 말했다. 특히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이 성장을 견인했다. 휴대전화로 사용되는 아날로그 칩은 21.5%,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는 13.7%판매액이 성장했다.

또 NOR형 플래쉬 메모리와 광전자 공학 디바이스도 성장하고 있어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대변했다.

PC출하 대수는 계속 예상을 웃돌고 있어 DRAM의 판매액은 13.7%증가했다. 그러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판매액은 2%감소했다.